

광주·전남 가뭄 3월까지 이어진다...봄철 영농기 초비상

최근 6개월 남부 강수량 평년 69~86%
 “3월까지 강수량 평년과 비슷·적을 것”

광주·전남 등 남부 지역의 최악 가뭄이 오는 3월까지 이어질 것이라 정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전방위적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795.1mm)은 평년의 93.1%이나,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

의 약 69~86%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3월까지의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남부 일부지역의 기상 가뭄은 대체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1월(평년 17.4~26.8mm)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2월(평년 27.5~44.9mm)과 3월(평년 42.7~58.5mm)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6.7%로 대부분 정상이나, 강수량이 적은 전북과 전남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이다.

정부는 마늘·양파 등 노지 발작물의 생육상황은 대체로 양호하고 월동기로 발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용수부족 지역 점검을 통해 용수공급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농기까지 가뭄 지속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는 하천수를 활용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전남지역 대규모 저수지(담양·장성·나주·광주호)에는 하천 유지용수를 감량해 용수를 비축해 나가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및 용수댐(14곳) 저수율은 예년의 101%, 98% 수준이다. 다만, 전남·북의 주암·수어·평립·심진강댐은 저수율이 낮아 댐 관리기준이 ‘심각’ 단계이고, 경남의 합천댐은 ‘주의’ 단계로 댐 공급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부 도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8개 시·군·구 1만665세대, 1만 8814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월 중 가뭄 진입이 예상되는 안동·임하·영전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조직(TF)’에 경상북도까지 참여를 확대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가뭄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환경부의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단계별 가뭄대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용수 확보 방안 등 가뭄대책을 수립해 가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암댐·평립댐 공급지역 13개 지자

체 중 8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자율절수 수요 조정제도’에 나머지 5개 지자체도 신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율절수 수요 조정제도는 수자원공사·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절감 목표 달성 시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하천수, 농경 배수를 활용해 농경지에 용수를 직접 공급하는 등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산업부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력해 광주·전남지역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하고 있다.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는 광주 동북댐 비상도수관로 사업 등 가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라며 “남부지역 국민께서도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주인 기다리는 꽃 9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화훼단지에서 진열된 꽃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매출 빼고 나오른다” 광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상인 울상

식재료·인건비↑...“고객 대신 내는 주차비 부담”
 양동시장 상인, 60% 오른 주차 요금 거센 반발도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광주 지역 상인들이 새해부터 오르는 공영주차장 요금에 울상을 짓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 산하 22개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린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시설 재투자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바뀐 인상안(1급지 기준)대로라면 1시간 주차 요금은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추가 요금 기준도 바뀐다. 기존엔 주차 30분 이후부터 15분 간격으로 추가됐지만 앞으로는 주차 10분 이후부터 10분 간격으로 요금이 붙는다.

상인들은 식재료·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고객 대신 주차장 요금을 부담하는 상인은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북구 문정초등학교 옆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강모(56·여)씨는 “식당 주인들이 손님 대신 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며 “한 달 주차 요금만 30만 원이 넘는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 시장 상인들은 약 60% 오른 주차비를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 주차 요금 50%를 감면받는다. 이를 반영하면 월권 주차비는 4만 원에서 6만5000원으로, 상인들이 고객 대신 부담하는 30분 주차권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김영식 양동시장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손

님이 비교적 넓고 쾌적한 대형마트로 옮겨가면서 발길이 뜸 끊겼다”며 “행정 절차 만들 고래해 요금을 60%나 인상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동 시장이 요금 인상이 높은 1급지로 묶인 것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는 공영주차장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1급지로 정해 요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 요금은 1시간 기준 1급지 2000원, 2급지 1300원, 3급지 950원, 4급지 700원이다.

김용목 양동시장 상인회장은 “지하철·버스 정류장이 시장 중심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며 “시에서 시장 실사를 벌여 위치·타당성을 검토하고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공시설 재투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시행 시점 등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환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